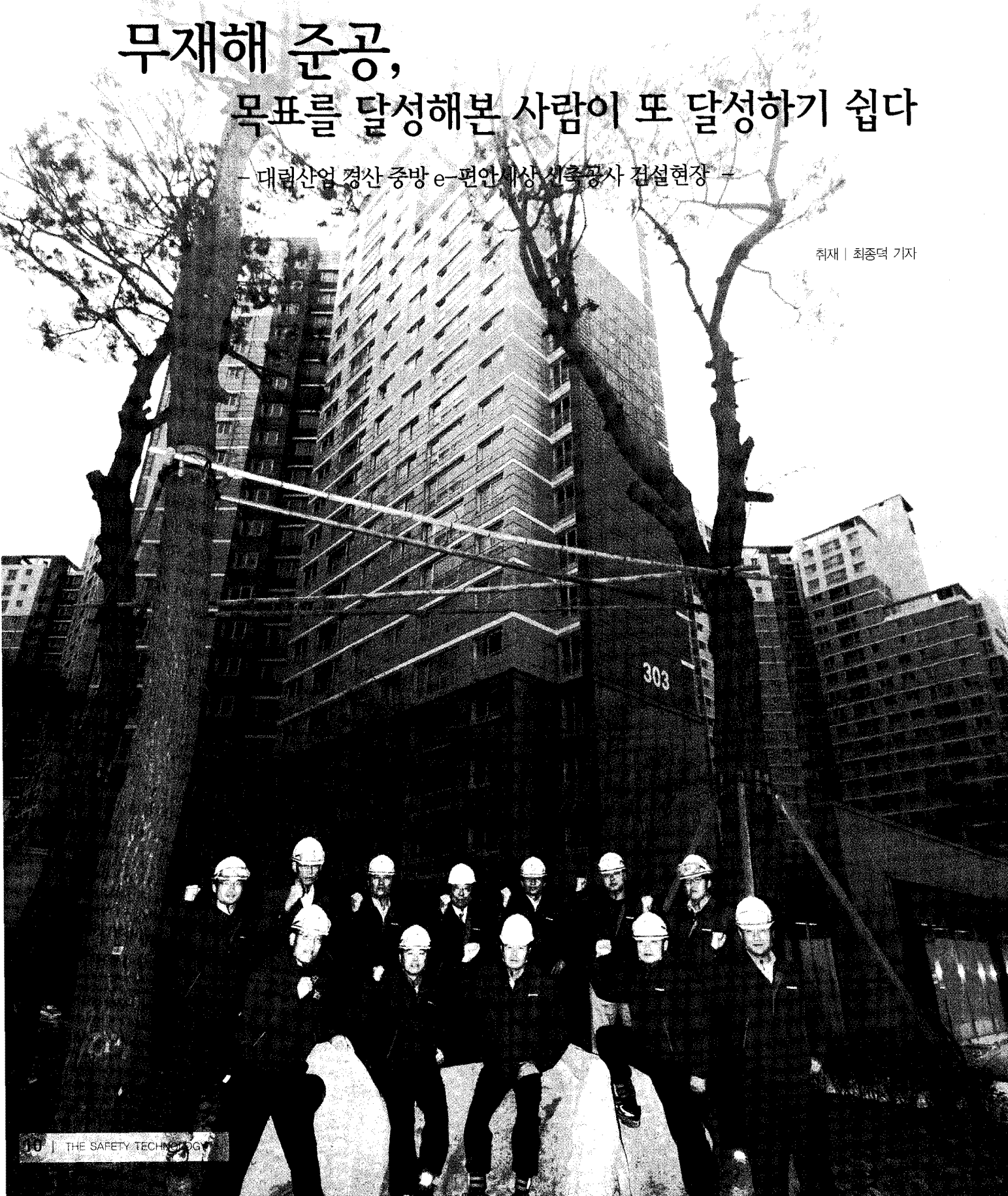


무재해 준공, 목표를 달성해본 사람이 또 달성하기 쉽다

- 대림산업 경산 증방 e-편안세상 세축공사 건설현장 -

취재 | 최종덕 기자





고기맛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무재해 준공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 찾은 “경산 중방 e-편안세상 신축공사(이하 경산중방 현장이라 함)” 현장도 무재해 준공을 달성해본 사람들로 주축이 되어 무재해 준공을 향해 달리고 있다. 경산중방 현장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박주석 현장소장은 이미 “부천상동 아파트 현장”, “마산한중 아파트 현장”, “대구주공사옥 현장” 등에서 다수의 무재해를 준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경산중방 현장의 안전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박금영 안전팀장 역시 전 현장에서 무재해 준공을 일궈내고 이 현장에 온 인물이다.

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의 축 중 안전을 총 지휘·감독하는 두 사람의 무재해 준공 경험은 경산중방 현장이 2007년 11월 28일 준공부터 오늘까지 무재해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마감공정이 한창인 이곳이 앞으로 무재해 준공으로 완성될 희망을 한층 높이고 있다.

경산시 중방네거리에 위치한 경산중방 현장은 총 1,477세대의 대단지 현장으로 2009년도 국가고객만족도 1위를 수상한 대림산업(주)이 시공하는 아파트인 만큼 대구 경산지역에서 명품아파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은 마감공정, 중대사고 위험은 적으나 사소한 사고 위험이 어느 공정보다 많은 특성이 있어 어느 때보다 안전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 경산중방 현장 사람들은 조심 또 조심 하며 오늘 하루도 완벽 시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무재해 준공을 위한 Key, 청소청결 그리고 정리정돈

경산중방 현장의 안전경영 방침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자율안전활동 활성화 그리고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이다. 강압적이기 보다 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현장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안전경영 방침에서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한 Key라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유도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업 종료 전 습관적으로 이행되는 정리정돈이다.

마감 공정이 한창인 경산중방 현장은 하루 평균 800여명의 출역인원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마감을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자재들이 현장에 들어온다. 좁은 현장에 많은 자재가 쌓이고 그 속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에 대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마감공정이 한창인 경산중방현장에서 무재해를 위한 Key로 청소청결, 정리정돈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SORA ... 대림산업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기법

대림산업의 안전하면 본사 중심의 철저한 안전기준에 있다. 그 중 위험성평가는 건설현장 최초로 도입된 안전기법으로 최근 제조업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M방식의 위험성평가와 그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대림산업의 위험성평가 기법, 바로 SORA 활동이다.

SORA는 매주 현장별로 작성되는데 각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협력업체도 예외 없이 시행된다. 이렇게 시행된 위험성평가는 본사 차원에서 매주 목요일 화상회의를 통해 시행정도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도 점검한다. 전사적으로 장려하고 추진하는 SORA는 대림산업의 안전이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산중방 현장도 이 틀 속에서 이틀만의 SORA 활동으로 오늘까지 무재해를 이끌어 왔다. 지난 8월 무재해 300만 시간을 달성한 이후 오늘까지 무재해 367만 시간을 달성하고 있는 것도 대림산업만의 위험성평가 기법이 SORA가 한 몫 하고 있다.

작은 불씨하나 허용치 않는 철저함, 무재해 준공을 이끈다


제법 날씨가 차가워졌다. 취재차 방문한 날도 촬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와 한기는 온몸을 휘감고 체온마저 떨어뜨렸다. 건설현장에서 겨울철 흔히 볼 수 있던 군불이 생각났다. 드럼통 장작에 불을 지펴 추위를 달랬던 군불이 간절했지만 이곳 현장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경산중방현장에서는 불씨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감공정이 한창인 지금 현장에는 모든 자재와 포장지 그리고 마감재에 불씨라도 점화되더라도 하면 지난 고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불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작업을 위한 온열기 사용은 허용된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온열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안전장치가 부착된 온열기만이 작업에 투입되기 전 사용될 온열기의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거쳐야 가능하다.

건설현장의 단골손님 재래형 재해, 흥이 있는 밀착관리로 근절

아파트 현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는 추락, 전도, 낙하 등 재래형 재해다. 최근 산업재해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집중관리의 목표도 이들 재래형 재해를 줄이는데 있다. 이곳 경산중방현장에도 이들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을 두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성안전과 밀착관리이다. 감성안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감동을 흥으로 불어넣어준다. 객금영 안전팀장은 감성안전 활동 중에서 올여름 무재해 100일 운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 때 행사는 전 근로자가 참여하여 무재해 100일 배지를 부착하고 100일 달성하면 배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였고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였다고 회상한다.

다음은 밀착관리를 통한 재해예방활동이다. 작업자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라도 안전요원과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어 항상 밀착관리하는 것이다. 안전요원과 관리감독자가 항상 곁에 있으니 불안정한상태와 행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신규업체가 투입되더라도 하면 사전에 시공과 안전에 대해 미팅을 통해 위험한 사항을 도출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안전경영 시스템에 있어 자율적이고 전원이 참여하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무재해 시공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무재해 준공은 계속될 것이다. 



박 주 석 현장소장

안전을 무시한 공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의 원인 중에는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고 있는 물적원인, 인적원인 그리고 천재지변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검토와 안전교육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기술적원인, 교육적원인, 관리적원인도 있습니다. 이중 관리적 원인은 저희 직원들이 사전 점검과 검토 그리고 안전교육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원인의 사고만 잡아준다면 직접적인 원인은 더불어 함께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 중 인적인 원인은 특성이 좀 다르면서 있어 우리 현장에서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허리매어 못 쓴다.”라는 말이 있죠. 이는 서두르지 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서두르는 과정에서 기본을 무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최근 무재해 하루를 마감하는데 있어 사전에 충분한 위험예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준공인 지라 자칫 공기에 쫓기다 보면 공기가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를 두고 기로에서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단언컨대 절대 안전을 무시한 공기 준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항상 숙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점차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지만 몇 개월 남지 않은 준공까지 근로자의 건강과 무재해 준공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근로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을 당부드립니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안전은 이 현장이 가장 안전한 현장이라고 현장 근로자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직원들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은 최고의 품질로 보답을 하게되지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안전은 곧 믿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믿음이 깔려있는 안전을 체험한 근로자들은 훗날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은 전전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는 한 근로자가 다가와 그 때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왔습니다. 당시 말을 전했어야 했는데 여의치 않아 못했던 말을 이곳 현장에서 만나면서 전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곧 우리 안전관리자들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그분에게 안전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말씀은 하지 않았겠죠.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안전업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믿음 있는 안전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준공 그날까지 무재해 준공을 해야겠지요.



곽 금 영 안전팀장